

의예과 학생의 성격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수업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이영희 · 이영미 · 김병수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ing Attitudes in Premedical Students

Young Hee Lee, Young-Mee Lee and Byung Soo K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of premedical students and their self-assessed communication skills and attitudes toward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9 second-year premedical students fro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which was validated in Korea, was used for evaluating personality types. Self-reported competency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s toward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ere measured by questionnaire.

Results: Sensing (S) and thinking (T) personality types were predominant in this study group (7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indicator 'Extraversion (E)-Introversion (I)' and the self-reported communication skill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four items of communication skills. Also, the personality indicator 'Thinking (T)-Feeling (F)'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ne item: ask if the person has any further suggestions. Personality 'I' students showed more concern with regard to their communication skills than 'E' types. 'Sensing (S)'-type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than "iNtuition (N)" types.

Conclusion: Students' self-assessed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varied between personality typ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sonality types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Key Words: Personality inventory, Communication, Attitude, Premedical students

서 론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임상기술로서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Brown, 2008).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의 의과대학은 물론 국내의 많은 의과대학도 학부과정에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의사소통' 과목을 개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교육과정이 학습자

Received: July 15, 2008 Accepted: August 19, 2008
Corresponding Author: Young-Mee Lee
ymleehj@korea.ac.kr

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과목은 의학과 교육과정에 통상 개설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좀 더 초기에 노출시켜 의료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의예과 과정에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의예과 과정에 개설되는 의사소통 과정은 의예과 학생들의 낮은 학습동기와 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교수자원의 부족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효과적인 수업 혹은 ‘좋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강의실, 시설 및 설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의 교육환경 요인이 있고 둘째,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매체, 교수자 요인 등 과정 변인이 있으며, 셋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능, 동기, 준비도, 인성특성, 자아개념 등과 같은 학습자의 개인특성 요인이 있다. 교육 환경과 과정 요인이 공급자의 의도에 의해 선택 결정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학습자 특성 요인은 개인차 변인으로서 학습자 개인에 의해 다르게 결정된다. 예컨대 지능, 사전지식, 문제해결력, 사고력 등의 인지적 요인과 성격, 자아존중감, 효능감, 목표성향 및 흥미 등의 인성적, 동기적 요인은 수업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격은 한 사람의 독특한 사람됨으로서 학습자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기본 조건으로서 성격은 선호하는 대인관계 방식과 의사소통유형, 학업성취도, 전공 및 직업 선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과대학생들의 성격 특성과 학업성취도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규제감과 성적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Lee *et al.*, 2006), MBTI 유형 중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Kim, 1999),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이 임상실습전의 학업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결과 (Lievens *et al.*, 2002)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격과 전공 선택과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에서는 의과 전

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충동적 감각추구 (impulsive sensation seeking) 점수가 높았고 (Hojat & Zuckerman, 2008), MBTI의 감정형은 사고형보다 가정의학을 더 자주 선택하였지만 외향형과 사고형이 내향형과 감정형보다 외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Stilwell *et al.*, 2000)을 보고하였다. Thompson & Bing-You (1998)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스타일과 성격유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 결과 워크숍 참가 이후 의사들은 사고 스타일과 정보인식 형태를 환자진료와 교육, 현장관리 및 행정, 의료 교육의 3가지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성격특성을 의사교육 및 진료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격특성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의대생 혹은 의사들의 대인관계 특성이 성격유형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7; Clack *et al.*, 2004). Kim *et al.* (2007)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MBTI로 측정된 성격유형 중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통제 지배적이고,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의 특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lack *et al.* (2004)은 영국의 의사들이 성인규준집단과는 다른 MBTI 성격유형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환자 면담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 오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들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성격유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사들은 자신의 성격 특성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과대학생 또는 의사의 성격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학업성취도, 전공 선택, 환자진료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동기과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의예과 및 의학과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프로그램을 개발

함에 있어 성격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예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이 자가평가한 의사소통 능력 및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의예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낮은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임상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낮은 의학과 학생 대상 수업에 대해서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의예과학생의 MBTI 4가지 선호 경향별, 16개 유형별, 기능별/기질별 유형 분포를 확인한다.
2. 의예과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3.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4.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수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008년 1학기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에 개설된 ‘의사소통기법’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1학기 개강 첫째 주의 강의 시간 중에 배포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합하였다. 총 59명의 수강생 중 3가지 검사를 모두 수행한 학생들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0명을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1명 (62%), 여학생이 19명 (38%)이었고, 평균 연령은 20.5세였다.

2. 조사도구 및 척도

1) 성격유형검사 (MBTI)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Jung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고 1990년에 한국

어판으로 표준화된 성인용 MBTI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자가채점용 (GS형)을 사용하였으며 검사지의 문항은 총 9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재검사 (Test-retest) 방법에 의한 신뢰도는 EI지표=.86, SN지표=.85, TF지표=.81, JP지표=.88로 검증된 바 있다 (Kim & Sim, 1995).

2) 의사소통능력검사

이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Makoul (2001a)이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위해 개발했던 ‘The SEGUE Framework’의 32문항과, Makoul (2001b)의 26문항 중에서 의예과 학생수준에서도 활용가능한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관계 형성, 공감적 이해, 질문하기, 갈등조절하기 등 14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의예과 학생 수준에서도 활용가능한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기술’이라 함은 선행연구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의사소통 기술 중, 실제 임상 노출이 있어야만 자가 평가를 위한 판단이 가능한 기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문장 형태로 질문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연구대상자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3) 의사소통 수업태도 검사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는 Rees & Sheard (2003)가 개발한 CSAS (communication skills attitude scale)의 26문항을 참조하고 연구자 회의를 통해 선정된 의사소통기술 학습의 필요성, 의사소통기술 습득의 효과 및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문장 형태로 질문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Medical Student'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preferences	Personality type	Frequency (%)
Focus of your attention	Extraversion	26 (52.0)
	Introversion	24 (48.0)
The way you take in information	Sensing	44 (88.0)
	iNtuition	6 (12.0)
The way you make decisions	Thinking	42 (84.0)
	Feeling	8 (16.0)
How you deal with the outer world	Judging	26 (52.0)
	Perceiving	24 (48.0)
Total		50 (100.0)

Table 2. Characteristic Types of Medical Students Frequency (%)

EI	JP	Sensing (S)		Intuition (N)	
		Thinking (T)	Feeling (F)	Feeling (F)	Thinking (T)
Introvert (I)	Judging (J)	ISTJ 11 (22.0)	ISFJ 1 (2.0)	INFJ -	INTJ -
	Perceiving (P)	ISTP 7 (14.0)	ISFP 1 (2.0)	INFP 2 (4.0)	INTP 2 (4.0)
Extrovert (E)	Perceiving (P)	ESTP 8 (16.0)	ESFP 4 (8.0)	ENFP -	ENTP -
	Judging (J)	ESTJ 12 (24.0)	ESFJ -	ENFJ -	ENTJ 2 (4.0)

3. 분석 방법

의과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전체응답자의 성격유형 분포를 8개 선호유형별, 16개 유형별, 기능 및 기질별로 파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과 수업태도는 기술통계량을 추출하여 연구대상 집단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수업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분석은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인 에너지의 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생활태도를

구성하는 유형지표들, 즉 외향형 (Extraversion: E)과 내향형 (Introversion: I), 감각형 (Sensitive: S)과 직관형 (iNtuition: N), 사고형 (Thinking: T)과 감정형 (Feeling: F), 판단형 (Judging: J)과 인식형 (Perceiving: P)에 대하여 각각 0점과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외향과 내향 (EI), 감각과 직관 (SN), 사고와 감정 (TF), 판단과 인식 (JP)이 의사소통능력 및 수업태도와 각각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Table 3.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s- by Function and Disposition

Function	Frequency (%)	Disposition	Frequency (%)
ST	38 (76.0)	SJ	24 (48.0)
SF	6 (12.0)	SP	20 (40.0)
NF	2 (4.0)	NF	2 (4.0)
NT	4 (8.0)	NT	4 (8.0)
Total	50 (100.0)	Total	50 (100.0)

Table 4. Students' Self-assessed Competence of Communication Skills

Valuables	Min	Max	M	SD
Greets and shows interest when meeting a person	2	7	4.86	1.50
Use words and tone that show care and concern	3	7	5.04	1.05
Use appropriate eye contact	1	7	5.08	1.40
Allow speaker to complete opening statement without interruption	3	7	5.16	1.10
Ask if the person has any further suggestions	3	7	4.92	1.21
Listen attentively without biases	1	7	4.46	1.28
Tune my own emotion	1	7	4.64	1.44
Elicit speaker's thoughts and emotions	2	7	4.84	1.18
Respond to the other's thoughts and emotions	2	7	4.96	1.14
Assess the other's understanding of what I am saying	1	7	4.92	1.21
Recognize and ask about the other needs additional information	3	7	4.74	1.08
Use easily understood words	3	7	5.10	1.00
Reach agreements on conflicting views	2	6	4.70	.97
Summarize the other's opinions	2	7	4.78	1.04

결 과

1. 기초통계

1) MBTI 성격유형 분포

연구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분포를 8개 선호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태도 유형은 '외향성'이 52%로 '내향성'보다 많았고, 인식기능에 따라서는 '감각형'이 88%로 직관형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판단기능별로는 '사고형'이 84%로 '감정형'보다 많았고, 생활태도 지표별로는 '판단형'이 52%로 '인식형'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MBTI의 16가지 유형별로 많이 분포한 순위를 보면 Table 2에서와 같이 ESTJ가 24%, ISTJ가 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ESTP 16%,

ISTP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ESFP 유형이 8%였고, INFP, INTP, ENTJ가 각각 4%였으며, ISFJ, ISFP는 각각 2%에 불과하였다. ESTJ와 ISTJ가 과반수에 가까운 46%를 차지하였고, 태도지표인 EI, JP는 각각 절반씩 분포하였다. 기능지표인 SN, TF는 각각 감각형(S)와 사고형(T)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유형 중 INFJ, INTJ, ENFP, ENTP, ESFJ, ENFJ의 6개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기능별 및 기질별 MBTI 분포는 Table 3과 같다. 기능별 분포는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조합에 따라 ST, SF, NF, NT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ST가 76%였고, SF 12%, NT 8%, NF 2% 순으로 나타났다. ST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외현적인

Table 5.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Valuables	Min	Max	M	SD
Good communication skills are essential to be a good doctor.	3	7	5.88	1.08
I know why I have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2	7	5.26	1.48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is as important as learning medical knowledge.	2	7	4.60	1.33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to respect patients more	2	7	5.02	1.24
It is interesting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2	7	4.56	1.28
It is troublesome to attend the communication skills class regularly (R) ^{a)}	1	7	4.56	1.63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improve teamwork	2	6	4.48	1.17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2	7	5.36	1.10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are so boring and give me a headache	2	7	4.40	1.20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too easy.	1	7	3.36	1.27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to show respect to peers	2	7	5.06	1.13
There is no problem with my communication skills.	2	7	4.60	1.26
I doubt if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is important (R) ^{a)}	2	7	4.78	1.09
It is important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because they are lifelong learning tasks	2	7	5.06	1.19

^{a)}Items marked (R) were reverse-scored.

행동패턴을 보여주는 기질별 유형은 SJ, SP, NF, NT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SJ가 48%로 절반에 달했고, SP는 40%였으며, 나머지는 NT가 8%, NF가 4%였다.

2)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학생들이 자가 평가한 의사소통능력의 14개 문항 총점 평균은 7점 만점 중 4.87점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앙값인 3.5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인 의사소통 기술은 '말문을 막지 않고 상대방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5.16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대화하기 (5.10점)', '상대방과 눈 맞추며 대화하기 (5.08점)', '관심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적절한 톤으로 말하기 (5.04점)', '상대방이 표현하는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해주기 (4.96점)',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지 물어보기 (4.92점)', '내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4.92점)'였다.

였다.

총점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대화하기 (4.64점)', '상대와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합의점 찾기 (4.70점)', '상대방이 나에게 궁금해 하는 점을 알아채고 질문해 주기 (4.74점)'였다. 가장 낮게 평가한 의사소통기술은 '선입견 없이 상대방의 의견 경청하기 (4.46점)'였다 (Table 4).

3)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의사소통기술이 꼭 필요하다 (5.88점)', '의사소통 기술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겠다 (5.26점)', '평생학습기술이므로 의사소통기술 학습은 중요하다 (5.06점)'로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문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Personality Types

Variables	EI ^(c)	SN ^(d)	TF ^(d)	JP ^(d)
Greets and shows interest when meeting a person	-.503 ^{b)}	.118	.115	.037
Use words and tone that show care and concern	-.538 ^{b)}	-.073	-.069	.040
Use appropriate eye contact	-.316 ^{a)}	-.021	-.065	.176
Allow speaker to complete opening statement without interruption	.043	-.055	-.115	-.105
Ask if the person has any further suggestions	-.003	-.027	-.426 ^{b)}	.031
Listen attentively without biases	.220	.254	-.029	.093
Tune my own emotion	.215	.050	-.234	.130
Elicit speaker's thoughts and emotions	-.108	.103	.013	.234
Respond to the other's thoughts and emotions	-.178	-.096	.015	.176
Assess the other's understanding of what I am saying	-.203	-.130	-.244	-.170
Recognize and ask about the other needs additional information	-.476 ^{b)}	.147	.055	.233
Use easily understood words	-.219	-.100	.122	.106
Reach agreements on conflicting views	.008	-.077	-.147	.133
Summarize the other's opinions	.206	.079	-.119	-.223

^{a)}p<.05, ^{b)}p<.01, ^{c)}EI means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As continuous scores, E was coded 0 and I was coded 1. A communication skill that shows negative correlation with EI means that Introversion-type students feel more difficulty in that particular skill than Extraversion types. ^{d)}The same procedure was applied to SN, TF, and JP: the former variable was coded 0, the later variable was coded 1.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학습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개선될 것이다 (5.36점)’, ‘의사소통 기술 습득은 동료 존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5.06점)’,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환자존중감이 증진될 것이다 (5.02점)’와 같이 의사소통 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서 의사소통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 학습을 통해 협동심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48점)’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의사소통 수업내용은 너무 빠른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고 난 후 머리 복잡하다 (4.40점)’, ‘의사소통 수업 출석이 귀찮다 (4.56점)’라는 항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는 높지 않음을 나타냈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문항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은 너무 쉽다 (3.36점)’여서 응답자들

이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과 대학생들이 의사소통 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은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수업에 대한 흥미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격유형과 의사소통능력, 수업태도의 관계

1)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에너지의 방향, 즉 내향형 (I)과 외향형 (E)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자가평가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관심 보여주기’, ‘관심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적절한 톤으로 말하기’, ‘상대방과 눈 맞추며 대화하기’ 및 ‘상대방이 나에게 궁금해 하는 점을 알아채고 질문해 주기’에서 부적 상관을 보여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위의 4가지 의사소통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Table 7.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for Communication Class and Personality Type

Valuables	EI ^(c)	SN ^(d)	TF ^(d)	JP ^(d)
Good communication skills are essential to be coming a good doctor.	-.229	-.246	.049	-.117
I know why I have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170	-.107	.257	-.061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is as important as learning medical knowledge.	-.165	.019	.258	.110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to respect patients more	-.048	-.006	.082	.082
It is interesting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109	-.066	.022	-.014
It is troublesome to attend the communication skills class regularly (R)	.113	-.052	.254	-.085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improve teamwork	-.018	.006	.197	.156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244	-.291 ^{a)}	.156	.087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are so boring and give me a headache	-.156	-.125	.083	-.054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too easy.	-.147	-.008	.005	.043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ill help me to show respect to peers	-.266	-.075	-.023	.091
There is no problem with my communication skills.	-.397 ^{b)}	-.227	-.035	-.013
I doubt if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is important (R)	-.175	-.209	-.062	-.138
It is important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because they are lifelong learning tasks	-.254	-.071	.257	.053

Items marked (R) were reverse-scored.

^{a)}p<.05, ^{b)}p<.01, ^{c)}EI means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As continuous scores, E was coded 0 and I was coded 1. An attitude for communication course that shows negative correlation with EI means that Introversion-type students feel more difficulty in that particular attitude than Extraversion types, ^{d)}The same procedure was applied to SN, TF, and JP: the former variable was coded 0, the later variable was coded 1.

을 알 수 있었다. 판단기능인 사고형 (T)과 감정형 (F)은 ‘질문하기’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감정형이 사고형보다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지 물어보기’를 더 어려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식기능과 생활태도는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성격유형과 수업태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향 (E) / 내향 (I)’과 ‘감각 (S) / 직관 (N)’ 변인만이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사고 (T) / 감정 (F)’, ‘판단 (J) / 인식 (P)’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나의 의사소통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있어 외

향형과 내향형 간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내향형이 외향성의 학생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감각형과 직관형은 ‘의사소통 학습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킬 것이다’에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의사소통 학습에 더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MBTI 선호경향별로 정리해보면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을 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의사소통수업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찰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대인관계 개선 및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성격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의예과 학생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수업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의예과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은 감각형 (S)과 사고형 (T)이 76%의 편중된 분포를 보인 반면, 직관형 (N)과 감정형 (F)은 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병원의사의 감각형/사고형 비율 분포가 63%, 치과의사 감각형/사고형 비율이 64%인 것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Korea MBTI Institute, 2004)보다도 많은 결과이며, Kim *et al.* (2005) 연구의 50.6%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감각형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유지하고 집중하는데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감각형은 상대방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할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전체적인 체계 혹은 요점을 놓치기 쉬운 약점도 갖는다 (Sim & Kim, 1998). 이러한 특성은 진료 상황에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환자의 말과 행동에 높은 주의집중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오감을 이용하여 환자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자-의사 관계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구대상 학생들이 감각형 (S)에 훨씬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학생들에게 감각형의 강점을 인식시키고 약점을 보완하여 이를 의료면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사라는 직업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사용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므로 성격유형과 상관없이 일상의 업무에서 사고 (T)와 감정 (F) 기능을 균형있게 사용해야 한다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Korea MBTI Institute, 2004). 과학적 탐구와 지식,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서는 사고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환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장면에서는 감정형의 특성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사고형은 냉정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한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제안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에 덜 민감하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반면, 대화상황에서 장황한 설명이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잘 할 수 있다 (Sim & Kim,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대상자였던 의예과 학생들이 감정형 (F)보다 사고형 (T)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전체적 집단적인 경향성면에서 볼 때 그들이 앞으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탐구영역보다 환자를 대면하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의학교육과정 중에 사고형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강점인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인 결정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약점이 되는 감정 기능을 개발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즉, 관계에 있어서 따뜻함에 가치를 부여하고 조화를 존중하며, 인간적 가치와 동기,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특성을 개발하여 환자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격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의사소통기술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향형 (I)은 외향형 (E)보다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관심 보여주기’, ‘관심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적절한 톤으로 말하기’, ‘상대방과 눈 맞추며 대화하기’ 및 ‘상대방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채고 질문해 주기’에서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에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내향성의 학생들이 외향성보다 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낮은 자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환자-의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자-의사 관계에서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더 권위주의적이었다고 보고한 Moon *et al.* (2006)의 연구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감정형 (F) 학생들은 사고형 (T)보다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지 물어보기’의 의사소통기술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형은 주관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향형 (I)과 사교형 (T), 감정형 (F)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성격유형에 따라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소통 기술과 스타일이 있음을 이해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의예과 학생들은 의사소통기술 습득의 필요성과 효과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흥미는 낮고,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수업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내향형 (I) 학생이 외향성 (E)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더 많다고 평가하였고, 직관형 (N) 학생은 감각형 (S)보다 환자-의사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의사소통 수업의 효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한 수업내용과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내향형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더 많이 하며,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향형에게는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거나 남의 공간에 대해 배려하고, 남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Lawrence, 2000). 또한 교수자는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점을 알고 이들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감각형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과 개념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업에서 체험 위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직관형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다루도록 하는 학습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Lawrence, 2000). 의과대학생 성격의 집단적 경향성을 고려한 수업방법으로 다른 성격유형과의 소그룹 토론, 역할연기, 자기주장 훈련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의과대학생의 발달, 성격, 적성, 인지능력

등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통합인성정보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인성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의과대학생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하거나 학생들 각각에 맞는 학습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개 대학의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의사소통 수업이나 의과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임상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낮은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 대상 의사소통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가치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의 확대와 의과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도구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며, 아울러 의과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예과 학생들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성격유형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의사소통능력 및 수업태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예과 학생들의 성격의 집단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from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06).

REFERENCES

- Brown, J.(2008). How clinical communication has become a core part of medical education in the UK. *Med Educ*, 42, 271-278.
- Clack, G.B., Allen, J., Cooper, D., & Head, J.O. (2004).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doctors

- and their patients: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 of communication skills. *Med Educ*, 38, 177-186.
- Hojat, M., & Zuckerman, M.(2008). Personality and specialty interest in medical students. *Med Teach*, 30, 400-406.
- Kim, E.K., Yang, E.B., & Kim, S.J.(2007).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Korean J Med Educ*, 19, 143-151.
- Kim, J.T., & Sim, S.S.(199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2th ed)*.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Kim, S.(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u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11, 271-284.
- Kim, S., Kim, J., & Hur, Y.(2005).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 Med Educ*, 17, 107-120.
-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Korea MBTI Institute.(2004). *MBTI Data Bank*.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pp.201-209.
- Lawrence, G., & Lee, J.H.(2000). *Looking at type and learning styles*.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Lee, Y.M., Ham, B.J, Lee, K.A., Ahn, D.S., & Kim, M.K.(2006).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with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18, 249-257.
- Lievens, F., Coetsier, P., De Fruyt, F., & De Maeseneer, J.(2002).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performance: a five-factor model perspective. *Med Educ*, 36, 1050-1056.
- Makoul, G.(2001a). The SEGUE Framework for teach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Patient Educ Couns*, 45, 23-34.
- Makoul, G.(2001b).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in medical encounters: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Acad Med*, 76, 390-393.
- Moon, S.W., Nam, B.W., Seo, J.S., Ryu, E.J., Kweon, H.J., Sohn, I.K., & Hahm, W.(2006). Patient-centerednes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18, 77-86.
- Rees, C., & Sheard, C.(2003). Evaluating first-year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before and after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Med Teach*, 25, 302-307.
- Sim, H.S., & Kim, J.T.(1998). *Guidebook for MBTI leader II*.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 Stilwell, N.A., Wallick, M.M., Thal, S.E., & Burleson, J.A.(2000). Myers-Briggs type and medical specialty choice: a new look at an old question. *Teach Learn Med*, 12, 14-20.
- Thompson, J.A., & Bing-You, R.G.(1998). Physicians' reactions to learning style and personality type inventories. *Med Teach*, 20, 10-14.